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6호 【루계 제2580호】

주체109(2020)년 2월 8일 토요일 음력 1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김정일동지는 걸출한 정치가, 위대한 영웅이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그이의 사랑의 자욱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랐으며 오늘은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이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김정일**령도자의 한생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생애이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으며 인민을 찾아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고 경모의 정을 토로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라고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은 칭송하였다.

민주꽁고신문 《라 쁘로스뻬리떼》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한 나라의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생애였다.

그이께서는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는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조선에서처럼 남녀로소모두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김정일**령도자께 있어서 인민사랑은 정치리념이고 모든 사색과 실천의 기초이며 한생의 전부였다고 전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은 **김정일**령도자의 정치가 가장 위력하고 가장 성공적인 정치로 될수 있은 비결의 하나는 바로 그이께서 인민을 믿고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데 있다고 서술하였다.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돌이켜보면 **김정일**령도자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고결한 헌신적생애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애국애민의 장정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였다.

그이께 있어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준은 인민의 행복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제일 귀중한 존재, 스승으로 내세우시고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그이의 고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대원수께서는 **김일성**대원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제국주의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제압하시고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을 사회주의보루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선군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베네수엘라 마라까이 《라 파엘 알베르또 에스꼬바르 라라》사범대학 주체사상에 관한 철학연구소조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것은 **김정일**동지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군력강화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으며 조선식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하시였다.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절세위인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해 라오스신문 《빠싸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되고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가 날로 로골화되던 시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운명을 지켜내시였다.

그이의 손길아래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수행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세네갈독립로동당 정치국위원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발전되였으며 조선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가 나라를 지킬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도전을 물리치시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신 강철의 령장,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의 시기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은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고 찬양하였다.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서기장은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내신것은 **김정일**각하의 특출한 업적이다,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을 단결시키시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를 쌓아올리시였다.

레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그대로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조선을 보다 큰 진보와 번영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되였으며 조선인민군은 강위력한 혁명군대로 장성강화되였다.

조선은 오늘 자주권과 독립,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나라들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는 걸출한 정치가, 위대한 영웅,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존함은 국제사회주의운동사에 영원히 기억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도 **김정일**동지는 제국주의세력과 과감히 맞서 조국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진국대렬에 올려세우신 특출한 령도자이시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그이의 사상과 업적을 잊지 않을것이다고 칭송하였다.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인의 한생이였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오늘도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길이 빛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소식

제35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5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축전은 교육과학, 정보기술, 금속재료, 전자자동화, 첨단기술제품분과 등 11개 분과로 나뉘여 과학기술성과발표회, 단위별전시경연,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되였다.

축전기간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여 경제발전을 선도해나갈수 있게 하는 200여건의 주요연구종자들에 대한 과학기술전략발표회도 있었다.

축전에는 교육사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80여건의 교육과학성과들을 비롯하여 지난 한해동안 대학에서 이룩한 280여건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출품되였다.

세쌍둥이 평양산원에서 퇴원

약동하는 공화국에 기쁨을 더해주며 세쌍둥이가 평양산원에서 퇴원하였다.

세쌍둥이(딸 3명)의 어머니는 남포시 대안구역 은덕동 76인민반에서 사는 김영화녀성이며 아버지인 김만용은 수산부문 로동자로 일하고있다.

지난해 10월 25일 대안구역인민병원에서 세쌍둥이가 태여났다는 소식에 접한 평양산원에서는 즉시 강력한 의료진을 뭇고 긴급후송을 조직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미래사랑을 받들고 이곳 의료집단은 애기들과 산모의 건강을 위한 수십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2산과, 3애기과의 의사,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속에 산모와 애기들의 건강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태여날 당시 세쌍둥이의 몸무게는 1.56kg, 1.84kg, 1.79kg밖에 안되였지만 101일이 지난 오늘은 4.08kg, 4.48kg, 4.72kg에 이르렀다.

3일 금반지와 은장도를 비롯한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고 건강한 몸으로 평양산원을 나서는 세쌍둥이와 부모를 평양산원의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따뜻이 바래주었다.

세쌍둥이의 부모와 의료일군들은 평범한 로동자가정의 경사를 온 나라가 축복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여 어머니당의 사랑에 보답할 굳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백두산공격정신과 오늘의 정면돌파전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들을 정면돌파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이것이 공화국의 전체 인민이 높이 들고나가고있는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벌려나가고있는 오늘의 투쟁에서 백두산공격정신은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되고있다.

백두산공격정신, 이는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장애와 난관을 맞받아 돌파해나가는 완강한 돌격정신이며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또 이는 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끊임없는 비약상승에로 추동하는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정신이다.

조선이 전진한다는것은 백두의 공격기상으로 돌진한다는것이며 조선이 이긴다는것은 백두산정신이 승리한다는것이다.

백두산공격정신은 민족자주위업수행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투쟁에서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게 한 추동력으로 되여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백두산공격정신을 창조하시여 강도일제를 타승하고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였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워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령도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시여 선군의 기치높이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이 제국주의강적들과의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두차례의 복구건설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강국건설시대에 이르는 전 로정에서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은것은 공격형의 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면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인민도 강대국의 주인의 지위에 올라서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백승을 떨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주체위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공화국의 인민들이 뼈에 새긴 철의 진리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백두의 공격사상, 공격방식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야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백두산공격정신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게 하는 강위력한 보검이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곧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지금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귀중한 모든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회담탁우에 올려놓고 양보와 타협을 운운하다가 자주권을 유린당한 나라들의 심각한 교훈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결심을 가졌다면 오직 철저하게, 완강하게, 끝까지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백두산공격정신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함이라면 단 한치의 후퇴나 방어도 없이 정면으로 돌진해나가는 투철한 자주의식의 발현이다.

차디찬 바다물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세상에 없는 주체무기의 탄생을 안아오시고 치렬한 정치외교전에서 공화국의 최고리익과 존엄을 견결히 수호하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의 안전과 존엄, 미래의 안전을 해치려는 그 어떤 행태도 용납하지 않고 맞받아나가시는 천출위인의 불굴의 기개는 백두산의 기상그대로이다.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싸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그처럼 짧은 기간에 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져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힘이 비축되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백두산공격정신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그처럼 간고한 조건에서도 그 누구의 도움이나 원조도 바람이 없이 맨손으로 폭탄과 무기를 만들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으며 그 자력갱생전통은 오늘도 공화국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백두산공격정신이 그처럼 위력한것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정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는 정신, 물과 공기만 있으면 기어이 일떠서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정신이기때문이다.

지나온 나날 봉착한 도전과 난관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 엄혹한것이였지만 그것은 결코 공화국인민들의 돌진을 멈춰세울수도 지체시킬수도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에 준엄한 난국이 가로놓일 때마다 백두산에 오르시여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다지시고 빨찌산식강행군으로 강국건설전역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시였다.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전민총돌격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돌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북방의 건설장에도 새겨져있고 자기 힘으로 부흥할수 있는 묘술을 안겨주신 공장, 기업소들에도 어리여있다.

백두산공격정신이 낳는 위력은 정녕 무한대하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 정신으로 그처럼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시를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보란듯이 전변시켰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최단기간내에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지난해 그처럼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들이 면밀히 추진되였으며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인것도 백두산공격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미증유의 장기적이고 가혹한 환경과 투쟁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며 더 강하게 성장하였다.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 제아무리 광분해도 백두산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간다면 얼마든지 멀지 않은 앞날에 세상에 소리치며 잘사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신심이고 락관이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력사의 모든 격난을 맞받아 헤치며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자기의 자랑찬 력사에 대해 누구나 긍지높이 되새기고있다. 기적과 승리만을 안아온 그길로 정면돌파전의 기발을 휘날리며 더욱 기세드높이 용진하는 공화국인민들은 이 땅우에 반드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린비료와 풍년든 가을

방울

◆ 농작물에 필요한 영양원소를 보장하며 땅을 걸구어 소출을 높일 목적으로 쓰이는것이 비료이다. 비료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치면 농작물의 생육과정을 목적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여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농작물의 정보당 소출량증가에서 비료가 담당하는 몫은 50%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 오늘날 비료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그가운데서도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없어서는 안되는 비료중의 하나가 바로 린비료이다. 린비료는 농작물이 질소를 잘 빨아들이게 하고 엽록소의 광합성작용을 촉진시키며 병충해도 막을수 있게 한다. 또한 남새와 과일에서는 열매의 맛을 좋게 하고 색갈을 곱게 하여 그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린비료가 농작물의 소출과 수확물의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 린비료생산량은 성분량으로 수천만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 최근 공화국에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기본생산공정들의 설비조립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있으며 동시에 과학기술보급실과 종합후생건물, 합숙을 비롯한 수십개 건설대상의 내외부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 농업전선이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면 그 병기창은 다름아닌 순천린비료공장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불리한 기상기후속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어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순천린비료공사장에서 련일 창조되고있는 혁신적성과들은 풍년든 가을을 그려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해주고있다.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공화국의 령토와 령공, 령해를 인민군대가 지킨다. 그뿐아니라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현장들에도 인민군군인들이 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인민을 돕자!》는 구호가 있는것처럼 인민군대는 한손에는 총을 쥐고 다른 손에는 마치를 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창건후부터 오늘까지 70여성상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지키였고 륭성번영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인민군대가 국가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혁혁한 군공을 세울수 있은것은 대를 이어 탁월한 령장들을 모신데 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건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장성강화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솔하에 백전백승강군의 명성과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장구한 세월 자위의 총대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한 무적의 강군이다.

인민군대는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반공화국적대세력과의 끊임없는 대결전에서의 련전련승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의 자랑찬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위업, 군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수 있었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군대의 5 200여개의 단위를 시찰하시며 군력강화를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최전연부대들의 전방초소로부터 각급 군사학교들, 비행부대, 땅크부대, 해군부대 등 군종, 병종부대들, 구분대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분쇄하고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가장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은것은 군력강화로 조국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낳은 력사의 기적이다.

대소한의 강추위, 삼복의 무더위와 폭우도 가림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그이의 애국헌신을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 철령과 1211고지를 비롯한 천리방선초소들과 굽이굽이의 전선길들이 오늘도 길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인 2011년 12월에도 인민군대의 화력타격훈련을 몸소 지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남기신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불패의 강군으로 건설하신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무적필승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하시며 군력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이시였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시련의 고비들을 강행돌파하여오신 그이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의하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군력강화에서는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일어나 인민군대는 세계적강군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였다.

자기의 실제적인 힘으로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것처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고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가는 창조의 기수로서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세상에 군대라는 무장집단이 출현한이래 나라를 지키는것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군대는 있지만 조선인민군과 같이 나라의 짐을 덜고 인민에게 덕을 주는 군대는 없다.

인민군대를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으로 믿고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창조의 마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불타던 전호가에 뿌리내린 거목들과 재더미우에 솟아난 비날론생산기지를 비롯한 창조물들, 서해갑문과 안변청년발전소와 같은 건설물들, 사회주의대지답게 변모된 협동전야들, 메기공장들과 양어기지들, 닭공장들을 비롯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수많은 재부들에 인민군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의 땀이 슴배여있다.

《미래를 사랑하라! 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라!》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인민이 바라는 곳에서 언제나 창조와 건설의 돌파구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간 인민군군인들의 무비의 창조정신과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번영의 열매,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지게 되였다.

인민군장병들이 건설한 창조물들을 보시고 우리 군대는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치하에 하나하나의 모든 창조물을 건설하여도 먼 후날에 가도 손색이 없는 나라의 재부, 인민의 향유물로 일떠세우는 인민군대에 대한 최상의 평가가 담겨져있는것이다.

창조의 강군인 인민군대의 면모는 오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로선을 실현하는 길에서 더욱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문명국의 체모에 맞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재부들을 무수히 창조하고있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마식령스키장, 릉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고 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창조물들에 조선속도, 마식령속도, 려명신화의 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의 땀젖은 모습이 비껴있다.

군인건설자라는 말은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부름이다. 이 말에 조선인민군의 남다른 특징이 있기도 하다. 군대를 소비집단으로, 백성이 먹여살리는것을 응당한것으로만 여기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수 없다.

최고사령관의 구상과 명령이라면 오직 한목소리, 《알았습니다!》의 대답밖에 모르며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불굴의 공격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으로 결사관철하는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이자 인민의 전진속도, 나라의 발전속도로 되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이런 군대가 있어 공화국은 강하고 끊임없이 비약발전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빛나는 행로우에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강군이 있고 강국이 있다는 진리를 줄기차게 써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자위의 군력을 건설하시는 나날에 ◎

자위의 병기를 자체의 힘으로

주체37(1948)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병기공장에서 만든 기관단총의 성능을 알아보시려고 사격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무기고에 있는 기관단총을 보시며 일부 사람들이 총신강이나 복좌용수철 같은것은 외국에서 사오자고 하였지만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무슨 일이든지 제힘으로 하겠다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사격탁앞에 이르시여 50m거리에 설치한 원형목표에 단발로 련속 세발을 사격하시였다.

10점원안에 명중된 목표지를 보신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이 아주 훌륭하다고, 명중률도 높고 집중성도 좋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것은 우리 나라 군수산업의 첫 승리이며 새 조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라고 하시며 성능이 좋은 기관단총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한 문제, 총탄과 수류탄, 박격포탄을 자체로 생산할데 대한 문제 등 병기생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군복에서는 언제나 땀내가 나야 한다

주체97(2008)년 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고 구분대의 임무수행정형을 알아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시였다.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군인들은 맹호처럼 전투동작을 신속정확히 수행하면서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였다.

훈련을 지켜보신 장군님께서는 만족을 표시하시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장에 나가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총을 쏘면서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또 흘려야 한다고, 땀배인 군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인의 군복에서는 언제나 땀내가 나야 한다고, 군인들이 싸움마당에서 기묘한 전술을 써서 적을 소멸하는 지혜와 재능도 땀을 흘리는 과정에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를 보아주시며

주체103(2014)년 3월 어느날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가 있었다.

그해 신년사에서 인민군대에서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날 현지에서 사격경기를 보시였다.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룬 사격경기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명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주야, 계절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키우자면 지휘성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매혹과 흠모

음악의 천재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 날이 갈수록 매혹되고있다.

환하신 그 영상 한번 뵈워도 마음은 정에 쏠리고 영명한 그 말씀 한번 들어도 온넋이 그 뜻에 끌리여 너도나도 달려가 심장을 주며 끝없는 흠모의 마음 세차게 굽이친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군사, 문학예술, 체육,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변혁과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비범특출한 절세위인의 세계를 다 안다는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령도의 자욱자욱에 새겨진 단면으로 본 위인상을 세상에 전하고저 한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쉽게 뛰여들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름난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천재성이 없이는 음악의 문을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당시)에 나오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악단의 창작집단에서는 새로 나온 노래에 대한 형상창조에 열중하고있었다.

창작가들로부터 작품의 형상과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성악배우들과 연주가들의 형상도 세심히 살피시며 노래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그러시다가 피아노를 마주하시더니 친히 노래의 선률을 하나하나 완성시켜나가기 시작하시였다.

피아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창작가들과 연주가들은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실력에 대해 전설처럼 전해들었지만 전문가들도 무색하게 피아노를 연주하실줄은 꿈에도 몰랐던것이다.

얼마후 피아노건반에서 손을 떼신 그이께서는 전단 첫 소절은 그대로 두고 두번째 소절부터 선률을 약박자로 들어가며 후렴선률을 더 폭발시켜야 한다고, 너무 갑자기 선률을 비약시키지 말고 감정적으로 끌고가다가 어느 한 대목부터 선률을 승화시켜 후렴으로 련결시켜야 한다고 리듬조직과 음의 진행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던 창작가들은 모두 《야!》 하고 탄성을 올렸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편곡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라고 하시면서 기성곡을 새맛이 나게 형상하자면 현대리듬에 태워 편곡해야 한다고, 노래편곡에서 기본선률과 밀착된 제2의 선률을 완전히 새롭게 뽑아내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여주실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연주회를 하게 된 기쁨을 안고 악단은 취주악곡들을 열심히 연주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수를 크게 쳐주시며 취주악곡들이 편곡도 잘되고 형상도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연주종목순서대로 하지 말고 자신께서 지적해주는 노래를 연주해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지적된 노래연주가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외국노래들을 몇곡 연주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수많은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악단이 새로 형상한 외국음악들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연주가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노래에 대하여 원곡과 잘 맞지 않는다고, 곡상의 요구를 잘 지키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이어 바스음력이 풍만하지 못한감이 든다고, 그리고 앨트도 음정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사실 앨트1번이 음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채 연주를 하였었다.

지휘자가 얼굴을 붉히며 앨트음정이 틀렸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글쎄 앨트음정이 혼탁된감이 든다고 하시였다.

관록있는 많은 연주가들이 수십가지의 각이한 악기들을 일시에 연주하는 그 복잡한 음향의 선풍속에서 전문가들도 포착하지 못한 앨트가 다른 악기와 혼탁되여 음정이 차이나는것을 순간에 헤아려내시는 그이의 음정파악의 비상한 정확성에 지휘자와 연주가들, 일군들은 또다시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정녕 그 어떤 음악가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음악적예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선의 음악은 나날이 더욱 발전하며 만사람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유금주

자기식의 독특한 발전이 비낀 창조물들

건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통해서도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모를 파악할수 있다.

하기에 건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거대한 조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배가해주고있다.

북변의 삼지연대지에 인민의 리상향, 산간도시의 본보기가 황홀하게 솟아올랐고 지난해에 양덕땅에는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서의 휴양지구가 일떠서 이 겨울철에 온천욕과 스키, 승마를 즐기는 각계층 인민들의 기쁨넘친 목소리가 양덕의 산발들에 울려퍼지고있다.

푸른 파도가 늠실대는 동해기슭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한폭의 그림처럼 일떠서고있다.

그 모든 건축물들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것은 자기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웠다는데 있으며 더우기 조선식이라는데 있다.

행성을 둘러보면 남의것에 대한 모방으로 자기의 우수한 전통과 고유한 멋이 사라져가는 례가 흔하다.

하나의 거리는 물론이고 국가의 존엄을 상징하는 수도의 설계에도 외풍을 받아들인 사례를 흔히 볼수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자기식의 설계, 자기의 기술로 자기 고유의 멋과 향취가 넘치는 재부들을 창조하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나 려명거리, 문수물놀이장과 과학기술전당, 공장과 병원, 학교와 마을, 유원지와 문화휴식터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자기식으로 창조해낸 보람과 긍지가 깃들어있다.

남의것을 모방하거나 남의 뒤를 따를것이 아니라 주체식,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남을 앞서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이 뜻과 의지가 인민들이 사는 거리와 노래춤 넘쳐나는 문화유원지, 국력을 과시하고 조선식문명을 시위하는 모든 창조물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식, 자기의것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강렬히 지향하시는가는 그이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해 10월 삼지연시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 읍지구는 볼수록 장관이라고,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못내 감개무량해하시면서 우리 민족제일주의건축리념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지방산간도시의 전형이 창조되였다고 하시였다.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관광지구주변의 농촌마을들은 농촌마을건설의 본보기가 되였다고, 이것이 우리 식, 조선식건설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조선식건설!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꼭 맞으며 인민들의 편의가 최우선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지어도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건축사이의 본질적차이가 있다.

비범한 식견과 안목으로 건물들사이의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을 비롯한 건축조형학적특성들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며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기능과 구조가 복잡한 건물의 설계도면들을 보시면서도 순간에 우단점들을 갈라내시고 설계가들도 미처 몰랐던 방도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주시는 그이의 예지는 이 땅우에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뜨겁게 어리여있다.

주체101(2012)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릉라곱등어관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곱등어관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살피시며 부족점들을 일깨워주시고 수정방도까지 가르쳐주시던 그이께서는 무대를 가리키시며 저 무대가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다른 나라들에도 있는 수족관과 곱등어관들에 대한 견해에 비추어 꾸린 무대인것만큼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한 한 일군이 그렇다고 말씀을 올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반대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연무대바닥에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불과 같은 색을 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며 무대의 배경을 바다기슭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무대바닥을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모래와 같은 색갈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식으로, 우리 식대로라는 이 투철한 자주정신은 건축분야만이 아니라 이 땅우에 번영과 승리만을 떨쳐온 기적의 근본원천으로 된다. 1970년대 후반기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도 큰 난관이 조성되였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길만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그 누가 강요한다고 하여 우리가 우월한 자기식을 버리고 남의 식으로 살아갈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사람이 옷을 입어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활동하기도 편리하고 남이 보기에도 좋지 자기 옷을 버리고 남의 옷을 빌려입으면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기풍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의 국풍으로 더욱 확고해졌다.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실 때에도 자신께서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을 중시한것은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를 몸소 타보신 날에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여서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긍지스럽고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의 힘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결과물들을 마주할 때가 제일 기쁘고 더없이 만족하다고 하시였다.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우리 식대로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자주의 의지로 하여 이 땅에는 조선의 넋과 기상을 반영한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떠서고있으며 인민이 향유하는 모든것이 자기의것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그 누구의 방조와 원조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기술로, 그 누구의 발전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방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창조하고 일떠세우는 공화국의 발전면모는 오늘날 세계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식으로 창조하라!

이 정신, 이 의지로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나가고 빛내여나가는 공화국의 앞길은 무궁찬란하다.

본사기자 리경월

시초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2)

김영일

이채로운 풍경

웃쪽을 보면 만물을 얼구는 동장군이요
아래를 보면 무더운 여름 방불케 하니
정말 겨울과 《여름》 두 계절이 함께 있는
하늘도 자연도 못 만들 장관이로다

사방천지는 흰눈이요
머리우의 소나무는 눈속에 묻혔는데
그아래 야외온천장에서는
사람들 유유히 온천물속에서 웃고있으니

한여름의 해수욕장이런듯
불깃불깃 사람들 얼굴엔 땀방울 돋히고
시샘을 하듯 찬바람 쌩쌩 불어쳐도
아이들 물장구소리 요란도 하여라

뜨거운 온천물에 몸 담그고 설경부감이라
한두마디로 이 쾌감 다 말할수 있으랴
한겨울에 《여름》이고 《여름》에 눈 구경이라
양덕온천, 온천명소의 제일가는 매력이여

봄빛넘치는 길

한개 도시를 맞먹는 휴양지라
무수히 이리저리 뻗어간 보행통로들
내리는 눈도 이 길만을 피해 내리는가
이 길을 봐도 저 길을 가봐도 눈 한점 없네

더운 김 피여오르는 길
봄날의 길인양 활개쳐 걷는 사람들
처녀들 호호 웃음발 날리며 걷고
엄마손 놓은 아이
제 먼저 앞서가며 뜀뛰기하네

그길 무심히 걷지 말아
우리의 원수님
한겨울에 사람들 오가는 길 얼지 않게
보행통로에 난방관을 묻어주라고
베푸신 다심한 사랑 어려있나니

걸음걸음 그 사랑 그 은정 목메이는 길
되새겨보노라 온천명소의 길들뿐이랴

우리 인민이 가는 길
원수님 인민앞에 펼쳐주신 길
어느때나 언제나 봄빛 따스한 길인것을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밤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
오늘의 행복을 두고 누구나 잠들수 없어
려관의 창가마다에는 불이 밝다네

호실마다에서 떠들썩 울려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솔잎온탕, 박하온탕, 당귀온탕…
온천장에 터뜨리던 웃음이 실려오네
승마공원의 말발굽소리 울려오네
스키주로 누비던 아슬아슬한 모험담도
그 이야기에 한몫 끼운다네

어이 잊으랴 양덕에서의 즐거운 나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에 남기고
이밤에 행복의 노래로 남긴다네
왔던 길 되돌아 가는 아쉬움
누구나의 가슴에 다 새겨져있다네

열번을 오면 아니 백번을 오면
아쉬움 없을가 서운함 없을가
누구는 꼭 다시 오겠다 단단히 벼르고
또 누구는 여기 양덕에서 다시 만나자
손을 걸고 약속도 단단히 해두누나

아, 양덕의 밤
누구나 잠들줄 모르는 기쁨의 밤
가지가지 이야기에 하나같이 넘치는건
이런 행복, 이런 웃음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 행복과 웃음의 이야기
양덕의 밤에 끝을 맺으랴
어이 추억으로만 깊이 새겨두랴
원수님 우리 인민을 위해 펼쳐주실
더 희한하고 더 황홀할 미래가 앞에 있거니

그 꿈같은 미래 그려보며 안아보며
무아경에 잠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밤이여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네
더 큰 행복이 더 좋은 래일이
우리의 앞에 있네 우리를 마중해오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생의 봄을 준 고마운 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극도에 이르고있던 1929년 가을 어느날 다섯살쯤 나보이는 아이가 서당문앞에서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있었다.

《하늘천, 따지, 감을현, 누를황…》

《원, 세상에… 이 마을에 신동이 났수다!》

동네사람들은 아이를 둘러싸고 연방 감탄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이 코물건사나 겨우 할 어린아이를 둘러싸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는것이 리해되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보다가 품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얘, 내가 읊는 한자구를 한번 써보겠니?》

난생처음 보는 만년필을 희한해서 이리저리 만져보던 어린아이는 머리를 분명히 쳐들고 대답하였다.

《예.》

말투며 옷차림을 봐선 도회지물을 잔뜩 먹은것 같은 안경쟁이는 제법 운까지 붙여가며 《한래서왕이요, 추수동장하리라.》 하고 뽐아댔다.

《아니, 어린것이 그런것까지 어떻게 알겠소?》

《너무하구만. 쯧쯧…》

모여있던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였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어린 눈길을 어린아이한테서 떼지 않았다.

아이는 처음 보는 만년필이 신기한듯 다시금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종이우에 8개의 한자를 써놓는것이였다.

《寒來暑往, 秋收冬藏》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은커녕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그 당돌한 모습에 사람들은 연방 혀를 찼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 하고 안경쟁이가 다시 물었다.

《그건 추위가 오면 더위는 물러가기마련이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깊이 건사한다는 뜻이예요.》

안경쟁이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지 안경을 벗어들고 눈을 슴벅거리다가 어린것을 덥석 그러안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였다.

《너야말로 신동이구나!》

그가 바로 후날 조선문단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소설가 석윤기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장편소설로 옮긴 《피바다》, 장편소설들인 《시대의 탄생》(1, 2부),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 중편소설 《전사들》, 단편소설집 《폭풍시절》…

그의 작품들은 주제사상이 예리하고 인간성격을 깊이 파고들며 철학적심도를 보장하는 명작들이였다. 그는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4.15문학창작단에서 혁명문학창작에 전심하면서부터 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년이 지난후의 일이고 지금은 락동강류역인 경상북도 달성군 동천면 불로동(당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난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신동, 그렇다. 그 안경쟁이말처럼 석윤기는 분명 신동이였다.

그러나 신동이면 무엇하랴.

딛고 사는 땅은 있어도 넋이 없는 땅이였고 식민지약소민족의 설음을 안고 살아야 했던 한많은 세월이였다. 설상가상으로 장마로 락동강이 범람하여 얼마 안되는 소작지까지 묻어버리자 그는 9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손목에 이끌려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거기서 그들은 안타까이 찾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는수없이 고향으로 되돌아온 그의 가정은 원한서린 소작살이를 다시 시작하였다.

석윤기는 점차 뼈대가 굵어지고 청년꼴이 잡혔지만 가슴속에는 늘 차거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있었다.

그속에서도 가족, 친척들은 그만은 기어이 공부를 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써서 겨우 당시 대구시에 있었던 대륜중학교에 입학시키였다.

석윤기선생

석윤기는 인차 학교적인 수재생으로 공인되였고 학생회장으로까지 선출되였다. 그때 학교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16살 되는 해에 해방을 맞았다.

(아, 인제야 인생의 봄을 맞이했구나.)

태동하는 인생의 봄향기에 취한 그는 밤잠을 잊고 대지를 활보하며 《해방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희열과 흥분을 누를길 없어 시 《출항》을 썼다.

이때를 회상하여 석윤기는 수필 《회고와 신념》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민족재생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일제를 쳐물리치시고 조국을 해방해주시였다.

나는 시를 썼다. 철부지내 눈앞에는 찬란한 해빛아래 푸른 바다가 누워있었다. 사랑하는 조국은 창창한 항로를 앞둔 아름다운 배였다. 갈매기는 날고 물이랑은 끝없이 설레이는데 우렁찬 배고동소리가 울린다. …그리하여 그 시의 이름은 〈출항〉이였다.》

그러나 그의 상념속에서 출항을 선포한 아름다운 배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쳐 산산이 쪼각나고 말았으니 남조선에 또다시 기여든 외세에 의해 열혈청년의 불타는 웨침은 불행과 고통의 시작으로 되였다.

그는 이 시작품때문에 지긋지긋한 감방생활을 해야했고 폐인이 되여 들것에 실려나오는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했다.

정신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더해갈수록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에 대한 동경이였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대의 서울해방과 함께 석윤기는 용약 총을 메고 침략자를 섬멸하는 결사전에 뛰여들었다.

이때를 회상하며 석윤기는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여있었는지 그때는 알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쓴 처녀작은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다.

전후복구건설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던 당시 《청년문학》창간호에 실린 그의 단편소설은 단번에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독자들의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그 소설은 그가 어느 한 병동에서 완성시킨것이였다. 탄약과 포탄상자를 싣고 불비속을 헤치며 맡겨진 수송전투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여 《용감한 수송전사》, 《영웅적운전수》로 전선신문에까지 소개되였던 그는 전승의 만세를 들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다.

그를 진찰하던 야전군의소 군의들은 그만 아연실색하였다.

《아니, 이런 몸으로 3년을 지탱하다니?》

이미 오래전에 갈비뼈가 온통 으스러졌던데다 석대는 아예 잘라낸 상태였다. 게다가 강한 외부적타격을 받은것으로 보아지는 척추는 위험지경에 있었다.

이렇게 되여 후방깊이에 있는 병원에서 생활하던 그는 당시 원장사업을 하던 항일혁명투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고 문학예술에 바치시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몹시 감동되게 되였다.

끓어오르는 흠모심을 억제할길 없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난 그는 전쟁시기 겪은 자기의 체험속에서 소재를 찾고 종자를 탐구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후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작품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불과 몇시간동안에 두명의 등장인물들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밝혔다고 하시였다.

그후에도 석윤기는 병상에서 중편소설 《전사들》을 창작완성하였다.

그는 한편의 작품창작을 한번의 돌격전으로 여기였다. 일분일초를 쪼개가며 작품창작에 모든 넋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편소설 《전사들》은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이라고 평가해주시면서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절세위인의 각별한 관심속에 석윤기는 1961년부터 그리도 열망하던 현역소설가로 되였다.

외세의 군화발밑에서 꺼져가는 초불과도 같았던 자기에게 인생의 봄을 안겨준 공화국의 은덕이 고마워 그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대수술을 세번씩이나 받으면서도 창작의 붓대만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

하여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1부)을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의 위대한 력사, 민족의 존엄과 긍지,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형상함에 있어서 자기의 작품에서는 무엇인가 미흡한데가 있다는 허전함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형상한 새로운 혁명문학을 지난 시기처럼 단편적인 면을 내용으로 한 짤막한 시나 단편소설 같은것을 몇편 쓰는 식으로 창작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모를 볼수 있게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써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문학작품에 담는것은 현시대의 성숙된 요구이고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일뿐아니라 새로운 혁명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과 임무라고 하시였다.

(바로 이것이다!)

석윤기는 탄성을 올리였다. 그길로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창작에 달라붙었다.

이 시기 작가동맹에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형상소설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집단(오늘의 4.15문학창작단의 전신)이 무어졌다.

석윤기도 여기에 망라되였다.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지 않는 영광은 짧은 기간에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한 원동력이 되였다.

한편한편의 작품완성과 함께 그는 몰라보게 성장하였고 그럴수록 가슴에 차고넘치는 그리움, 언제면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같은 그 영상가까이에서 한번만이라도 뵈올수 있을가 하는 간절한 소망이 세차게 불타올랐다.

그러던 1970년 가을부터 간호원 안영애를 원형으로 하는 영화문학집체창작에 망라되여있던 석윤기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되였다.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작가 석윤기를 자신의 곁으로 또다시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깊도록 문학예술건설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약한 몸이 걱정되시여 치료에 알맞는 좋은 약들을 알아보시고 손수 구하여 보내시면서 튼튼한 몸으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라고, 앞으로도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제기하라는 뜨거운 정 넘치는 교시를 전달받게 되였다.

(장군님. 저 같은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누구나 제일 기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무엇보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것은 어머니만큼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때문인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두고 온 고향땅, 떠나간 자식의 운명을 걱정하고계실 남녘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어머니, 난 여기서 인생의 봄을 맞았습니다. 친어머니도 못다 준 사랑속에 난영원히 약동하는 봄날에 살것입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손길에 이끌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4.15문학창작단 단장,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형상창조에 모든 열정과 넋을 깡그리 불태웠다.

과연 무슨 힘이 있어 병약한 몸으로 수십년간 그리도 많은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가 남긴 한편의 시에 다 담겨져있다.

나의 소원은
깨끗하고 소박한 나의 소원은
원쑤가 불태우고 짓이겨놓은 나의 소원은
친애하는 그이의 품에 안기여 소생의 봄을
맞이했나니
아, 나래치라 꿈이여! 희망이여!
한없이 부풀어오르라 나의 소원이여!
…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나의 소원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만민의 행복
조선의 영예
이 세상 모든 소원의 구심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강이여라!

본사기자

말로는 《정세완화》, 행동은 전쟁준비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서울에서 남조선에 날아든 미륙군성 장관과 미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강화를 바탕으로 한 련합방위태세》와 《대북군사적공조》를 모의하였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공중무인체계추진평가회의》에서 올해안에 중고도무인기를 비롯한 16종의 무인기전력화를 추진하고 700여대의 상용무기를 추가도입하겠다고 공개하였다.

특히 올해 상반년까지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3대를 도입하여 이미 창설한 정찰비행대대력량을 강화하기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말로는 《북남관계우선론》을 표방하면서 실지행동에서는 공화국을 해칠 침략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군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분야합의서리행》을 운운하며 《신뢰조성》과 《긴장완화》에 대해 력설해왔다.

남조선군부가 진실로 정세완화를 바라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러한 립장을 보여주어야 했다. 다시말하여 군사적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무력증강과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기 위한 실제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떠나 정세완화와 안정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빈소리이며 기만적인 위장평화술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조선군부세력들은 《군사분야합의서리행》과 평화의 연막을 치면서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지난해에만도 남조선호전세력은 외세와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련합공중탐색구조훈련과 련합편대군종합훈련,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신한 《동맹19-1》과 《련합지휘소훈련》 등 크고작은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또한 그 무슨 《다양한 위협들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첨단전쟁장비들을 외부로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얼마전에도 남조선군부가 지난해말 기계화사단을 동원하여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을 벌린 사실이 공개되였다.

더우기 주목되는것은 남조선군부가 올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미군특수부대들과 공화국을 겨냥한 련합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계획이라고 밝힌것이다.

남조선군부는 이에 토대하여 다음해에는 자행포와 신형땅크 등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미군기갑부대와 련합군사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고 떠들었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군부세력들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전쟁도발을 기도하고있다.

아직도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력증강과 외세와의 군사적공조책동에 계속 광적으로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최광히

실제적인 지배자는…

남조선에서 미국의 《주권》침해행태에 대한 각계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저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며 하인다루듯 해온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력대로 미국은 남조선을 《한미동맹》의 쇠사슬에 얽어매놓고 실제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며 저들의 리속을 다 채워왔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라는것 자체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정》이며 날강도적이고 예속적인 현대판 노예문서이다.

오늘 세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나라와 지역이 적지 않고 주둔과 관련한 협정들이 존재하지만 미군이 남의 땅을 제 집 드나들듯하고 토지와 시설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며 온갖 범죄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는 곳은 유독 남조선뿐이다.

이 굴욕적인 《협정》으로 하여 미군은 남조선에서 무제한한 특권을 누리며 무소불위의 지배자로 군림해왔으며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과 치욕을 강요하였다.

력사에 기록된 제주도와 로근리에서의 민간인대학살과 동두천녀인삭발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두 녀학생살해사건을 비롯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경악케 한 이루 헤아릴수 없는 온갖 범죄적만행들은 미군의 야수성과 잔인성, 횡포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기간 미군에 특권적지위를 부여하고있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두고 《미국의 식민지임을 립증하는 매국문서》, 《미군에 상납한 면죄부협정》, 《살인허가문》 등으로 단죄배격하면서 《협정》의 페기와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해온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어디 《행정협정》뿐인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 역시 미국이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조선경제가 거덜이 나든 남조선인민들이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략탈자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더욱 가증스러운것은 미국이 온갖 치떨리는 악행으로도 성차지 않아 각종 명칭을 단 합동군사연습들을 뻔질나게 벌려놓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첨단살인전쟁장비들을 계속 들이밀며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에 몰아넣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미국이 해마다 벌리는 북침전쟁연습과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독성물질의 살포로 하여 남조선의 농토가 황폐화되고 동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있는 지역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미국이 실제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며 정치와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 재난은 계속되게 될것이다.

강문영

남조선주둔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4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폭로하였다.

신문은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주변의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허용수치를 초과한 오염물질들이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최근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남의 땅을 공짜로 쓰고 오염까지 시키고도 정화비용을 떠넘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의 오염사고를 비롯한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신형코로나비루스사태로 민심이 흉흉하다. 하루밤 자고나면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고 또 접촉자는 얼마이라는 소식과 함께 나도 모르게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생겨 시중의 공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남조선의 여야정당의 후보자들은 지난 시기처럼 선거운동을 요란스럽게 벌리면 민심의 비난을 받을수 있다는데로부터 대중장소에서의 선거활동과 명함배포를 자제하고 악수대신에 눈인사를 하거나 선거사무소개소식을 간소화하고 길거리선거운동을 중지하고있으며 주로 인터네트나 손전화기를 통한 선전에 매달리고있다고 한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아직 왁찐과 치료약이 똑똑히 개발된것이 없고 일단 몸에 침습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것만큼 사람들사이에 접촉을 될수록 피하려 이렇게 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사람들이 골치거리로 여기는것을 저들의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자들이 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보수세력들의 장외집회를 두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신형코로나비루스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있는 속에 지난 2일 서울 남대문앞에서는 보수세력들이 모여들어 박근혜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보다 앞서 1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세력들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장소에서 울려나온것이란 현 당국에 대한 비난과 박근혜석방소리뿐이였다.

대중의 감정과 사회적흐름과는 동떨어진 이러한 집회의 배경에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세력들이 있다.

지금 《자한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보겠다는 야심밑에 그 무슨 《보수대통합》을 떠들면서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으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그 세력권확장놀음에 《박사모》를 비롯한 우익보수분자들도 포함시켜보겠다고 하는것이 바로 《자한당》이다.

이로부터 《자한당》은 《박사모》를 비롯한 우익보수분자들이 《정신적지주》로 여기고있는 박근혜를 저들에게 끌어보겠다고 사람웃기는 너절한 추태들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자한당》 대표 황교안과 《자한당》내 《공천》관리위원장이 저저마다 나서 《박 전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계속되는건 국민이 바라는게 아니다.》, 《하루빨리 박근혜의 구속이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떠든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더 나아가 《자한당》내부에서는 3월 1일을 계기로 박근혜를 《특별사면》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이러한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이 민심이 두려운줄 모르고 쑥대우에 오른 민충이마냥 기고만장해서 박근혜석방을 주장하는 장외집회를 로골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이다.

어제는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자한당》에서 내쫓고 오늘에 와서는 권력을 차지해보겠다는 야심밑에 다 죽어가는 정치송장 박근혜에게 빌붙어 아부하는 역적무리들의 행태야말로 역겹기 그지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장소에서 한사람이라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가 있다면 그 후과는 이루 상상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대중집회를 하지 말자는것이 바로 남녘민심이다.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더러운 당리당략과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 대중집회를 부추기고 비호하는 《자한당》이야말로 백성들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죽든살든 관계없이 저들의 머리우에 《국회》의원감투만 올려놓으면 만사가 다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권력미치광이들의 집합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취급하는 《자한당》에게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이 안중에나 있겠는가.

남조선 각계가 《자한당》을 가리켜 《신형코로나비루스소멸과 함께 뿌리채 없애야 할 〈박멸당〉》이라며 민족반역당을 비난조소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김응철

정치시정배들의 역겨운 추태

최근 남조선에서 《총선》을 앞두고 18살 청소년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야당들사이의 치렬한 경쟁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따라 남조선에서 선거년령이 기존의 19살에서 18살로 낮아지면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여난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였다고 한다.

비록 그 수가 전체 유권자의 1.1%밖에 안되지만 선거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될수 있는것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소속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는가 하면 《전국청년당전진대회》를 연다, 투표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하고 크게 떠들고있다.

정의당 역시 18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당에 입당시키는 한편 청년층의 관심을 끌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있다고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고등학교가 정치화되고있다, 《교실의 정치화》와 《저급한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고아대던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도 그 무슨 《청년친화정당》, 《신선한 피의 수혈》을 떠들며 청소년유권자들의 환심을 낚아보려 하고있다.

어떻게 하나 18살 청소년유권자들을 끌어당겨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해보려는 남조선여야정당들의 움직임이다.

여느때는 청소년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청년과 미래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생색을 내며 청소년쟁탈전을 벌리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정치풍토이다.

지금 각 정당들이 저마끔 《청년친화정당》의 냄새를 피우며 청소년들에게 추파를 던지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들을 한갖 《선거표》로밖에 보지 않고있다.

돌이켜보면 력대적으로 그 어느 정당이나 온갖 화려한 《청년공약》들을 람발하여왔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부패정치, 반청년정치로 젊은 세대들의 환멸과 실망만을 자아냈다.

오늘 남조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청소년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청소년들은 무겁게 내려누르는 학비걱정과 생계걱정, 직업걱정으로 청춘의 꿈과 포부를 다 포기하고 눈물과 절망속에 살아가고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은 그 누구도 바로잡을수 없는것이다.

제반 사실은 오로지 권력에만 혈안이 되여있는 정치시정배들에게 남조선청소년들이 기대할것이란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최진옥

세계적으로 확대되고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피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월 30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생한것을 전례없는 사태로 평하면서 이 비루스가 세계적범위에로 전파되고있어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일 24시현재 이 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폐염환자가 2만 8 018명, 사망자는 563명에 달하였다.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확진된 환자수는 3 694명, 사망자수는 73명 더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증환자는 3 859명, 의진자는 2만 4 702명이며 18만 6 354명에 대한 의학적관찰이 진행되고있다. 완쾌되여 퇴원한 환자는 1 153명이다.

홍콩에서는 3명이 추가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로 등록됨으로써 그 수는 21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8일부터 중국본토에서 오는 려행자들은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관계없이 2주일간 격리될것이라고 밝혔다.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10명, 대만지역에서 11명이 전염성폐염환자로 확진되였다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있다.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5일 오후 19번째 비루스감염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는 17번째 비루스감염환자와 함께 싱가포르에 갔다온 36살 난 남성이라고 한다.

6일에는 4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20번째와 22번째 환자는 이미전에 확진된 15번째와 16번째 환자의 가족이며 21번째 환자는 6번째 감염환자와 접촉한적이 있다고 한다.

23번째 환자는 지난 1월 23일 남조선에 온 58살 난 중국인녀성이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난 시기 싸스의 전파때보다 클수 있다고 보도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의한 피해규모가 커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전파원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를 예방하기 위한데 큰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본사기자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과거 력사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비쳐주는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침략과 략탈의 죄악사를 안고있는 일본에 있어서 력사서술문제는 일개 학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범죄적인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립장과 태도문제이며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세계가 알게 해주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일본이 인류력사에 특대형반인륜적범죄들로 락인된 죄악들을 성근하게 인정하고 어지러운 과거와 하루빨리 작별하라는것이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이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인류의 정의와 량심의 목소리에 오늘도 파렴치하게 도전해나서면서 침략의 과거를 되풀이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다.

조선침략을 노린 《운양》호사건

일본은 일찍부터 아시아의 관문인 조선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다.

19세기 중엽 《명치유신》으로 알려진 부르죠아개혁을 실시하자마자 대조선침략정책인 《정한론》을 들고나온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 9월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다. 1875년 5월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킨 일제침략자들은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위세를 돋구었다. 그들은 조선이 저들의 힘앞에 위압되여 스스로 굴복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해 9월 항로를 측량한다는 구실밑에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또다시 침입시켰다.

남의 령해에 들어가자면 해당 나라의 사전승인을 받는것이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당시 조선봉건정부는 불법침입한 일본침략선이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침략무리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사전에 군사정탐임무와 강화도공격임무를 받고왔기때문이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륙군대장 야마가타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정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는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토설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치밀한 계획밑에 물이 떨어졌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당시 조선서해의 중요한 요새인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기여들었다.

초지진의 조선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을 단호히 격퇴해버리였다. 그러나 《운양》호의 침략무리들은 저들의 기도를 버리지 않고 방어가 약한 섬들을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였으며 야만적인 파괴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는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또다시 800여명의 군대를 태운 7척의 침략함대를 강화도에 침입시켜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섰다.

당시 일본정부는 포악무도하고 생트집을 거는데서 유명하기로 이름난 특등사무라이 구로다 기요다까를 특명전권판리대신으로, 회유기만전술에 능한 여우같은자인 이노우에를 부대신으로 각각 임명하여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써서라도 기어이 조선봉건정부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일본침략선 《운양》호

일본침략자들은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조약》을 체결할 심산밑에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야겠다.》, 《이 손해배상대신으로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봉건정부를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지어 저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렇게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에 의한 로골적인 협박, 공갈로 1876년 2월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무효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비법강점하고 40여년동안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웠다.

이처럼 《운양》호사건은 과거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과 강점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목적밑에 계획적으로 감행한 범죄적인 무장도발이였다.

본사기자 주광일

난관을 뚫고 철강재생산에 박차를

—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과업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분발해나섰다.

전후복구건설시기 페허속에서 짧은 기간에 선재압연기, 박판압연기를 복구하고 맨주먹으로 평로를 살려낸 그 정신, 산소열법용광로를 꼭 성공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기어이 주체철을 뽑아낸 그 본때로 이곳 련합기업소의 용광로직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강행돌파하면서 철강재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용광로직장의 생산자들은 철강재생산의 앞공정인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을 잘하여 잘 익은 쇠물을 끓여내여 장쾌한 출선모습을 펼쳐놓고있다.

주체철생산계통의 심장부를 지켜선 조절공들과 용해공들은 산소보장단위와의 긴밀한 협동밑에 로운영을 잘해나가고있다.

보장단위에서도 용광로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앞세워 보장하고있다.

특히 산소분리기 2직장에서는 공기압축, 랭각, 정류, 분리, 산소압축 등 산소생산공정들의 조종과 조작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모든 기대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제강부문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강철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강철직장 원료작업반에서는 강철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전기로에 필요한 주원료와 부원료들을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대형초고전력전기로를 지켜선 전기로의 용해공들은 전기로의 운영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는데 모를 박고 장입물의 정확한 평량과 전극소비량 등 로조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이자 생산장성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지난해 대보수기간 전기로의 동체계통에 대한 기술개조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기로에서의 열효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합리안들을 받아들이고있다.

련속조피작업반, 유압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벌리면서 강철생산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청년선재직장에서는 교대별생산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그것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고 련관공정들간의 맞물림을 책임적으로 하여 가열, 압연, 전단설비들을 정상가동하도록 하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가열작업반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가열로의 가스관, 공기관관리를 정상화하여 환강생산에 필요한 온도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압연공들도 조연, 선재압연기의 조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능숙하게 해나가고있으며 전단작업반에서도 생산의 마지막공정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압연강재생산공정의 선행부문인 롤가공직장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궤도전차레루생산에 필요한 롤가공을 제기일에 보장하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다른 직장들에서도 부유예열식산소열법용광로건설공사를 비롯한 생산능력확장공사에 힘을 넣고있다.

이렇듯 이곳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맡겨진 철강재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일터에 넘치는 애국의 마음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크지 않은 공장이다. 하지만 오늘 이 공장은 여러가지 종류의 식료포장주머니, 각종 규격의 수지용기, 각이한 용도에 따르는 수지관 등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수지제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수지일용품생산기지, 보배공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자력갱생의 본보기단위로 앞장에서 내달리며 언제나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특색있게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보조건물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뜻한 모습이 안겨왔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중나온 지배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공장의 외부가 공원처럼 아름답다는 우리에게 그는 종업원들이 힘을 합쳐 꾸린것이라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환경을 번듯하게 일신시켜놓으니 힘은 들었어도 땀흘린 보람이 크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사람들의 존경과 우대를 받으며 쉬염쉬염 일해도 될 영예군인들이지만 너도나도 떨쳐나 단층건물에 뒤떨어진 설비 몇대가 전부이던 공장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전변시키기까지의 가지가지의 사연을 전해들으며 우리는 통합조종실에 들어섰다.

이곳에 들어서니 한쪽벽면을 채운 액정TV화면에 주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의 상태, 전력의 질과 소비상태, 기본공정정수들과 전반적인 생산실적이 수자와 도표형식으로 현시되고있었다.

공장에서는 공정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 전력관리체계, 업무관리체계로 이루어진 통합조종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고 생산현장실태에 대한 실시간적이며 직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리익을 얻고있었다.

이어 생산현장에 들어서니 기대마다에서 천필처럼 흐르는 비닐필들과 문양곱고 다양한 형태의 식료품포장재들이 쉬임없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이곳에서 종업원들이 팽창압출기, 3면접합절단기, 색인쇄기, 합부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가며 포장재를 생산하고있었다.

생산현장에서 우리는 팽창압출기 권취부문의 속도조종장치를 개조하기 위한 프로그람을 자체로 개발한데 기초하여 원료절단기, 세척기, 탈수기, 건조기,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속도조절장치 등을 연구제작하고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도 만나보았다.

이밖에 수지판성형기, 수지고뿌성형기, 대형사출기, 자동중공성형기, 관성형기, 관접합기들에서 1회용수지밥곽과 고뿌, 운반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이 생산되여 나오는 모습도 볼만 하였다.

지배인은 파수지회수체계를 확립하여 수백t의 파수지를 재생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문제해결방도를 재자원화에서 찾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지관성형기의 물자동조절변과 파쇄기, 전자조각기, 6kW능력의 태양빛전지판들을 새로 설치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하겠다고 말하였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공장을 현대화하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수지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공장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은 볼수록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본사기자 림광훈

국내외에서 명성떨치는 3관편성관현악단

얼마전 모란봉극장에서 3관편성관현악단조직 50돐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리였다.

주체적배합관현악의 대표적작품들인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아리랑》,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 관현악 《매혹》, 관현악 《명곡묶음》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른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의 면모와 창조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교향악의 신비로운 음색과 장쾌한 선률, 심원한 정서적감화력으로 환희로운 음악의 세계를 펼치는 명곡들을 감상하면서 사람들은 깊은 감회속에 3관편성관현악단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더듬었다. 추억은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로 거슬러올랐다.

3관편성관현악단의 탄생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 건반 및 지탄악기들로 편성된 큰 규모의 기악연주형식인 관현악, 그 울림이 크고 폭넓은 음폭, 다양한 음색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독특하면서도 풍부한 감정정서로 그려내는 매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관현악은 음악예술발전의 정수를 이루고있다.

목관악기를 비롯한 악기들의 규모에 따라 1관편성 혹은 2관편성으로 불리우는 관현악에서 3관편성은 큰 규모라고 할수 있다.

1960년대말 3관편성관현악단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다. 재정문제, 악단의 력량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발목을 잡혀 웬간한 나라들에서 3관편성관현악단을 부러워하면서도 꾸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오래전부터 주체교향악건설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3관편성관현악단을 꾸릴 웅지를 품으시고 주체58(1969)년 12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3관편성을 110명으로 하고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120명정도로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며 3관편성관현악단을 조직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실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대담한 구상이였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집단군이나 전략군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3관편성관현악단을 조직하는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향악단을 마련해주려는 은정어린 조치에 의해 전국각지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인들이 모여왔고 제일 좋은 악기들을 일식으로 받아안았다.

1970년 1월 26일, 드디여 공화국에서 대규모의 3관편성관현악단이 세상에 태여나는 력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게 되였다.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는 속에서도 새 조선의 교향악단을 건설하실 원대한 구상밑에 각지에 흩어져있는 연주가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여 주체35(1946)년 8월 국립교향악단의 전신인 중앙교향악단을 창립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선의 교향악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이였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교향악으로

3관편성관현악단을 조직할 무렵 국내에서 교향악은 사대와 교조에 오염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극장무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형편에 놓여있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 불이 켜지자 출연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공연시작전에는 그래도 절반나마 차있던 객석이 공연이 끝나고보니 텅 비다싶이 했던것이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빈 객석에 대고 연주를 하였다는것을 알게 된 연주가들은 가슴을 쳤다.

인민들이 듣고도 잘 알수 없고 마음이 끌리지 않는 유럽의 고전교향곡이나 그것을 본따서 만든 교향곡이 대중의 공감을 자아내지 못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교향곡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것은 군중의 문화수준이 낮아 교향악을 리해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해설음악회》 같은것을 조직하거나 재담, 촌극을 펼쳐놓으면서까지 관객을 불러보았으나 이렇다할 효력을 보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음악을 즐기고 사랑해온 인민이라고, 문제는 어떤 교향악을 하는가에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미학적요구에 맞는 주체적인 교향악을 발전시켜나가도록 창작가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럽곡이 아무리 명곡이라 하여도 우리 인민이 좋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쓸모도 없다고 하시면서 교향악을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민요와 인민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명곡을 편곡하는 원칙에서 발전시키며 양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키고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직접 현지에 나가시여 작품창작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관현악 《내 고향의 정든 집》, 《그네뛰는 처녀》, 《아리랑》을 비롯하여 시대의 지향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명작들이 련이어 태여나게 되였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도 그 나날에 태여난 주체적배합관현악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사회주의농촌의 가을풍경을 한폭의 그림마냥 훌륭히 형상한 독특한 배합관현악의 울림, 어깨춤 들썩이는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진 결산분배장을 련상시키며 3관편성관현악소리를 뚫고나오는 민족적색갈이 탁 튀여나는 새납소리…

이렇게 창작된 교향악작품들은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어느해인가 국립교향악단의 지방공연때 한 녀성이 공연을 보고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무대에 뛰여올라왔다. 그리고는 《동무들! 감사합니다. 동무들의 연주를 커다란 흥분속에 들었습니다. 교향악이 이렇게 좋은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교향악이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냥 듣고싶습니다.》고 하면서 연주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한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져가던 교향악이 이렇듯 대중의 심금을 틀어잡고 인민들의 절찬을 받는 교향악으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던것이다.

서풍을 압도한 조선의 교향악

공화국에서 3관편성관현악단이 고고성을 터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 지구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적배합관현악의 황홀하면서도 독특한 울림앞에서 세상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교향악이라고 하면 자기들만의 독점물로 여기던 유럽의 음악전문가들은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보고나서 《민족악기와 양악기의 배합에서 얻어지는 특색있는 소리는 유럽이 모방할수 없는 독특한 소리이다. 마치도 잘 정제된 향수에서 뿜어져나오는 그윽한 향기와 같았다.》, 《누구나 리해할수 있는 인민적관현악의 참다운 표현이다. 조선예술의 극치를 보았다.》, 《유럽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훌륭한 예술이 동방에서 탄생하였다.》,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은 교향악분야에서 서풍을 압도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여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를 본 프랑스의 한 음악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음악가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연주도 해보고 들어도 보았지만 이렇게 웅건장중하고 힘있는 대연주는 처음 들어본다. 내가 받은 감동과 흥분, 격정을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이 음악에 〈흰눈심포니〉라는 이름을 달고싶다.》

3관편성관현악단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연주기량에 있어서나 관록있는 세계적인 예술단체로서의 명성을 떨치고있다.

어느해인가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어느 한 나라의 교향악단 수석지휘자가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에 나섰을 때였다.

처음에 그의 태도는 매우 도고했다. 손색없이 꾸려진 모란봉극장과 120여명의 3관편성관현악단을 보고 깜짝 놀라기는 하였지만 지휘를 앞둔 그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도고한 자세로 지휘탁에 오른 그는 연주가들의 안삼블수준을 타진해보기 위해 첫 곡으로 연주기교가 복잡하고 힘든 곡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연주가들이 거침없이 그 곡을 연주하고 그가 지적한 다음 곡도 훌륭히 연주해내자 거만하던 그의 태도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바뀌였다.

협연이 끝나자 그는 대단히 훌륭하다,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조선의 교향악단과 안삼블을 해보았는데 세계적수준의 악단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약동하고있다.

그와 더불어 3관편성관현악단은 더욱 나래를 활짝 펴고 그 장엄한 울림을 끝없이 터치고있다.

주체교향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비약의 봉우리에로 떠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관현악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우리의 국기》와 같은 시대의 명작들이 줄기차게 나와 온 나라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3관편성관현악단은 명성높은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 시대의 진군가, 투쟁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며 주체교향악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성능이 더 좋은 새형의 궤도전차

공화국에서 새해에 들어와 이전에 비해 성능이 훨씬 개선된 새형의 궤도전차들이 운행을 시작하여 거리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기자와 만난 송산궤도전차사업소 일군은 이번에 운행을 시작한 새형의 궤도전차들은 이미전에 만든 궤도전차들에 비해 기술적측면과 승객들의 편리성측면에서 현저히 개선되였다고 말하였다.

궤도전차의 앞뒤부분을 유리섬유강화수지로 성형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성능이 개선된 견인전동기를 쓰는데 맞게 종전에 궤도전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하던 견인전동기대수를 줄이고 배치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제작원가를 낮추면서도 견인능력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또한 운전사들이 손접촉식화면현시장치를 통하여 속도와 전압, 전류의 세기, 견인전동기의 동작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궤도전차를 운전할수 있게 종전의 상사식조종체계를 수자식조종체계로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궤도전차운행의 안전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였으며 고장이 나도 손접촉식화면현시장치를 통하여 제때에 발견하고 퇴치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의자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궤도전차의 내부를 시원스레 하고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인원을 태울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액정TV를 전차의 중간부분에 한대 더 설치하였으며 승강대의 높이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승객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새형의 궤도전차를 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가 보기도 좋고 여러모로 편리해서 정말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2월의 절기와 민속

2월의 절기들에는 립춘과 우수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립춘을 맞으며 집안팎을 깨끗이 손질하고 그해의 소원이나 새봄을 맞이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벽장 같은데 붙이군 했으며 움파, 산겨자, 신감채 등으로 봄의 향취가 풍기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립춘시기 농사에 해당한 풍습에서 특색있는것은 소와 관련한 의식이 많이 진행된것이였다.

지방에 따라 나무로 만든 소를 마을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 나무소에 농쟁기를 메워 밭가는 시늉도 하였으며 부림소를 리용하여 얼마간의 밭을 갈기도 하였다.

우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이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북부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온도가 0℃이상으로 올라가며 눈석이가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석이물을 웅뎅이마다에 잡아두고 농사차비를 서둘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윷놀이, 바줄당기기, 널뛰기, 연띄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하군 하였다.

올해의 립춘은 2월 4일, 우수는 2월 19일이다.

본사기자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4)

세계력기강자 림은심

기관차체육단의 림은심선수는 국제국내경기들에서 높은 기록을 세운 력기강자로 세계력기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컵경기대회에 참가한 림은심선수는 녀자 71kg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에서 112kg을, 추켜올리기에서 138kg을 들어올림으로써 각각 제1위를 하였으며 종합 250kg의 성적으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컵경기대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경기들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언니 림정심선수처럼 세계적인 력기최강자가 될 꿈을 안고 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않은 그의 불같은 열정과 노력은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로 이어졌다.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93kg을, 추켜올리기에서 113kg을 성공시켜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다같이 우승하였다.

이어 그는 2016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끌어올리기에서 105kg을, 추켜올리기에서 135kg을 들어올려 각각 제1위를 하였으며 종합 240kg의 성적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역시 그에게 있어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잊을수 없는 대회였다.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의 경기는 수많은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녀자 63kg급경기에 출전한 림은심선수는 빠른 추기와 재치있는 련결동작으로 자기의 특기를 잘 살리면서 시작부터 마감까지 책임적으로 경기를 운영해나갔다.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06kg을, 추켜올리기에서 131kg을 들어올려 각각 제1위를 하였으며 종합 237kg의 성적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그는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녀자력기 69kg급경기에 나선 그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109kg과 137kg을 각각 성공시켜 2위를 한 선수보다 13kg 더 많은 종합 246kg의 성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였다.

림은심선수는 이번까지 3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정월대보름명절

새해에 들어와 설명절다음에 맞게 되는 큰 명절은 정월대보름이다.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에 여러가지 의례행사들을 하면서 의의있게 보냈다.

이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달맞이였다. 보름달은 매달 보름날 밤이면 볼수 있지만 한해가운데서도 정월대보름날의 달이 제일 크게 보인다.

정월대보름날 저녁에는 온 마을사람들이 뒤산에 올라 쟁반같은 둥근달이 솟아오르는것을 구경하였다.

이날 저녁이면 추위도 아랑곳없이 저마다 떠오르는 둥근달을 구경하였는데 이때 달을 제일먼저 보는 사람에게 큰 복이 차례진다고 하였고 달의 모양과 빛갈을 보고 기상현상을 짐작하거나 농사작황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달맞이가 끝나면 그에 이어서 홰불놀이가 시작되였다.

불이 잘 붙는 싸리나무묶음에 삼대를 섞어 홰대를 만든 청장년들은 달맞이하기 좋은 산에 올라 농악을 울리면서 놀다가 보름달이 솟아오르면 저마다 홰에 불을 붙여들고 농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기세를 올렸다.

이날에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낟가리대를 세우는 풍습도 있었다.

벼, 수수, 조, 기장, 피 등 곡식이삭을 매단 낟가리대를 작은보름날에 세워서 보름가량 두었다가 2월 초하루날에 거두었다.

어린이들은 이 낟가리의 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였으며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새해에도 거기에 매단것과 같은 알찬 이삭과 실한 송이가 달리여 낟가리대만큼 로적가리를 쌓을수 있게 풍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다.

이밖에 대보름날에 연띄우기놀이, 바람개비놀이, 다리밟이놀이, 수레싸움놀이, 바줄당기기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들도 진행되였다.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에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웃사이에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지냈다.

정월대보름날에 아홉가지 마른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박(박나물), 오이, 버섯 등을 말리운것과 호박오가리, 무우순, 배추 그리고 오이꼭지와 가지껍질, 무우잎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물에 불구고 데쳐서 나물을 만들거나 국을 끓여먹었다.

우리 선조들은 새해에도 오곡농사가 잘되여 풍년이 들며 오복이 있을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을 지어먹었다.

이날에 오곡밥을 검은나물(취)로 싸서 먹었는데 이것은 새해에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서 생긴것으로서 일부 지방에서는 《명쌈》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정월대보름날에 단음식으로 엿을 달여먹었다. 엿은 흰쌀이나 찹쌀, 수수, 강냉이 등의 낟알과 감자농마가루 혹은 고구마, 무우, 호박으로도 만들었다.

정월대보름날에 약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약밥은 먼저 찹쌀을 시루로 쪄내고 참기름과 꿀, 물엿을 고루 섞어 밥알이 서로 붙지 않게 한 다음 대추살과 밤, 감을 넣어 간을 맞추고 다시 시루로 쪄내여 만들었다.

좋은 약재인 꿀을 넣어 만든 밥이여서 《약밥》이라고 하였으며 갖가지 장수식품이 들어있어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하여 《약식》이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날 이른새벽에 밤이나 호두, 은행, 잣 등 굳은 나무열매를 까먹고 무우를 먹으면 이발이 든든해지고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아 편안하게 지낸다고 하였다. 이것을 《부스럼깨기》, 《부름깨기》라고 하였다.

올해의 정월대보름은 2월 8일이다.

본사기자

사화

결의삼형제 (6)

글 박병식, 그림 채대성

이날따라 날씨는 몹시 스산하였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에이는듯이 맵짰다. 한손으로 섬을 흔들어보니 그안에서 《춘매》가 꿈틀거리였다.

《이 사람아, 꼭 내가 시킨대루만 말해야 하네.》

정희수는 누가 들을세라 섬주둥이에 입을 바싹 가져다대고 주절대기 시작했다.

《그놈이 재물을 사취하고 류씨와 좋아한다고 나와 자네가 둘이서 한결같이 나가면 희준이야 한입 가지고 두입을 당해내지 못할게 아닌가. 류씨가 없으면 자네를 정실로 들여앉힐수 있고 지금까지 류씨를 내쫓지 못하게 하던 희준이도 이번판에 아예 내보내고마세. 그러면 둘이서 보기 싫은것들을 다 내쫓고 잘살수 있네.》

정희수는 말을 끊고 대답을 기다렸으나 섬안에서는 꿈지럭거리기만 할뿐 기침소리조차 없었다. 누가 몰래 보는것 같고 마음이 초조하여 가슴은 바작바작 타들었다.

《여보게 춘매, 내 말 좀 들으라구. 사또가 사실을 말하라고 하거든 내가 시킨대로 다 말하게. 그래서 오늘로 아주 류씨와 희준을 요정내잔 말이야. 수태도 했겠다,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아주면 우리 정씨가문의 재물과 세도를 자네가 독차지할게 아닌가. 왜 대답이 없나? 꼭 내가 시킨대로 말하지 응?…》

섬안에서는 말을 곧 하려는듯 옴지락옴지락하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정희수는 춘매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기에 이토록 대답이 없을가 하는 의심이 차츰 불일듯 하였다.

하늘을 쳐다보니 벌써 한낮이 기울었다. 조바심이 난 정희수는 섬을 흔들며 애걸했다.

《속시원히 대답이라도 좀 하라구, 꼭 시킨대로 하지? 응? 야— 이것아 말을 좀 하렴!》

섬안에서는 여전히 잠잠해있었다. 속이 타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정희수는 입으로 뜨거운 김을 토하며 미친듯이 섬을 잡아 흔들었다.

《아이구, 죽겠구나. 이년아! 어쩌자구 말을 않느냐! 그놈이 내 재물을 사취하지 않았다거나 류씨와 관계가 없다고만 말하는 날엔 네년이 내 칼에 없어질줄 알아라!》

정희수는 벌떡 일어나서 발길로 섬을 마구 걷어찼다. 섬안에 웅크리고있는 사령은 옆구리를 몇번 채이고 신음소리가 터져나오는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당장 뛰여나가 뺨을 후려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어쩌는수가 없었다.

《이년아! 꿈틀거리긴 왜 꿈틀거려.》

정희수는 너무도 안타까와 섬을 그러안고 흔들어댔다.

《여봐, 내 답답해서 욕을 했네. 안타까와서… 내 시킨대루 말하게 응? 아이구 답답아! 후—》

갑자기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서 돌아보니 젊은이들이 달려오며 소리치고있었다.

《여보시우, 관가 사또께서 때가 기울도록 오지 않는다고 사령들을 풀어서 내보냈으니 빨리 돌아가야 하리다.》

그 젊은이들은 저희들끼리 웃고 떠들며 정희수가 멍하니 앉아있는 곳을 휙 지나쳐갔다. 까마귀들까지 조롱하듯 청승맞게 까욱까욱 울어댔다.

하는수없이 섬지게를 또 짊어지고 동헌쪽으로 한걸음한걸음 발을 옮기던 정희수는 련못뚝의 다리에 이르러 멈춰섰다.

《이년, 너 죽고 나 죽자. 내 당장 이 섬을 저 시퍼런 련못속에 뿌려팽개치고말겠다!》

정희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발을 구르며 을러멨다.

섬속의 사령은 이자가 정말 저 련못속에 섬채 뿌려팽개치면 어찌나싶어 당장 소리치고싶었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정희수나 박희준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명심했다가 형장에서 그대로 옮길 일을 생각하며 입을 꾹 다물었다.

지게바줄을 식식거리며 다 푼 정희수는 《이년, 어디 너 죽어봐라!》 하고 소리쳤다.

그바람에 섬속의 사령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바줄로 꽁꽁 묶인 섬이라 요지부동이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령은 몸이 달아 연방 발버둥질을 하면서도 입만은 꾹 다물었다.

섬은 피상한 짐승처럼 펄떡펄떡 날뛰였다.

《이년이 그래두 목숨은 아까운 모양이지. 말하겠어, 안하겠어? 내가 시킨대로 말하지? 에잇, 물속에 들어가 물귀신이 되여봐라!》

정희수는 끙끙거리며 섬을 다리란간에 내려놓았다.

섬속의 사령은 몸이 달아 올랐다.

(아차, 이젠 죽는고나! 어떻게 할가!)

이때 동헌쪽 큰길가에서 《저기 련못가에 있다!》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관가에서 달려나온 사령들이였다.

정희수는 얼른 섬을 지게에 옮겨싣고 대충 바줄로 얽어맸다.

사령은 그제야 속으로 (아이구, 이젠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내뱉았다.

사령들은 정희수를 노려보며 빨리 가자고 몰아댔다.

이윽하여 옥색도포에 섬지게를 진 정희수는 사령들의 재촉을 받으며 울상을 하고 동헌안에 들어섰다.

사또는 대청마루에 무겁게 앉아있었다.

사또의 령으로 이번에는 박희준이가 그 섬지게를 지고 삼문밖으로 나갔다.

박희준은 묵묵히 저자거리를 한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삼문앞에 이르러서야 섬안에 들어있을 《춘매》를 대상으로 입을 열었다.

《희수의 후실도 사람이 아니시오. 벗을 바른길로 이끌다 내 이 지경이 되였다고 한풀이를 하는것은 아니외다만 어찌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사람을 잡으려 하오. 나는 비록 죽어도 무방하오만 마음 착하고 남편에게 그토록 성실한 류씨를 어찌 루명을 씌워 내쫓으려든단 말이요. 하늘이 무섭지 않소? 당신도 사람이라면 벗도 안해도 몰라보는 희수를 바로잡아주어야 할게 아니요. 세상을 속이고 법을 속이고 량심을 속이고 당신이 이 세상에 살것 같소. 끝까지 속이려다가는 천벌을 받으리다!》

섬안에서는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윽고 기운없이 터벌터벌 걸어 동헌안에 들어선 박희준은 섬지게를 내려놓았다.

그동안 흩어졌던 군중들이 두사람 다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모여들었다. 동헌안은 수백명 군중으로 꽉 들어찼다.

사또는 뜰아래를 굽어보며 《섬안에 든 춘매를 꺼내놓아라.》 하고 분부했다.

그러자 사령 두사람이 섬을 묶은 바줄을 칼로 툭툭 끊어 제끼고는 섬아구리를 열어제쳤다.

섬아구리에서는 춘매가 아니라 얼굴이 거무틱틱하고 입이 쭉 짜개진 사령의 상반신이 드러났다. 군중들도 어인 일인가싶어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젊은 사령은 섬안에서 몸을 솟구어 전신을 드러내며 눈을 끔벅거리더니 옷을 툭툭 털며 성큼 뛰여나왔다.

력사유물

천문유산—혼천의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독자적인 수단들을 제작하여 천체에 대한 관측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천문유산가운데는 혼천의도 있다.

혼천의는 천체의 위치를 비롯한 천문학적값들을 측정하는데 리용한 관측기구로서 일명 혼의라고도 한다.

혼천의는 구조적으로 볼때 눈금이 새겨진 환들과 환들의 중심축에 달린 규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으로 혼천의를 리용한 관측은 규형으로 천체를 겨누고 그것의 위치에 해당한 환들의 눈금을 읽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도 기록되여있는 혼천의는 여러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개량완성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이름난 천문학자인 남병철에 의해 종전의 관측기구들의 기능을 다같이 수행할수 있는 만능혼천의로 발전하였다.

남병철은 국내외의 여러 문헌을 조사하여 력대의 혼천의들이 가지고있는 우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혼천의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을 리용하여 19가지의 천문학적값들을 측정할수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혼천의를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만능관측기구로 구조적으로 더욱 완성시켰을뿐만아니라 혼천의로 관측한 결과들을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계산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19세기 재능있는 학자였던 리상혁은 자기의 수학론문집 《산술관견》에서 다른 나라의 저서에 실린 서양학자의 계산방법을 실례로 들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것을 지적하고 계산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혼천의와 같은 우수한 천문관측기구들을 창안제작하여 리용함으로써 천문리론을 발전시키고 인류과학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이젠 가벼워졌을거야

옛날 시골에 사는 한 농부가 콩 두섬을 소잔등에 싣고 장마당으로 가고있었다.

황소가 헐떡거리면서 걷는것을 본 농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콩 두섬중에서 한섬을 덜어 제 잔등에 지고는 다시 소잔등에 올라타면서 중얼거렸다.

《이젠 훨씬 가벼워졌을거야. 어서 가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